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75
JUN 11 2021

발간년월 2021년 6월 11일 (통권 제175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역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러시아, 세계 최대 우라늄 광산 개발한다.
- 러 플래티넘 사, 백금광산개발 실태 확보
- 러 극동북극개발부, 북극 해운 기업 설립
- 미, 노드 스트림2 관련 러시아 기업 제재
- 러, 수산물 수입 막고, 국내수산업 활성화

주요 통계

- 2021년 4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액체화물)
- 2021년 3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 2021년 3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주요 동향



러시아, 세계 최대 우라늄 광산 개발한다.

그림. 사하공화국 엘콘 우라늄 광산



자료: <https://thebarentsobserver.com/en/industry-and-energy/2021/06/russia-brings-back-largest-global-uranium-project>

■ 러시아 부총리가 세계 최대 규모인 엘콘 우라늄 광산 개발을 지시했다.^{a)}

- 6월 2일 야쿠티아 지역의 지질 탐사 추진과 광물 활용 효율화에 관한 컨퍼런스에서 러시아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가 2017년 이후 중단된 이 지역 엘콘(Elkon) 우라늄 광산 개발 사업을 로사톰이 재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러시아 영토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야쿠티아(또는 사하공화국)는 광물자원이 풍부하며 남부지역에는 약 35만 7,100톤 규모의 세계 최대 우라늄 광산이 있음
-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라늄에 대한 세계 수요가 급락하면서 파운드 당 약 70 달러에 거래됐던 우라늄 가격이 25달러로 폭락하였으며, 이후 2020년까지 그 수준이 유지됨
- 이에 따라 러시아 연방지하자원청(Rosnedra)은 2017년 엘콘 우라늄 광산에 대한 로사톰의

라이센스를 우라늄 시황이 개선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하지만, 최근 우라늄 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는 등 우라늄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으며, 2021년 현재 우라늄 가격이 파운드 당 30~35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음
- 특히, “녹색” 에너지에 대한 세계 트렌드로 인해 핵 에너지와 이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우라늄에 대한 관심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황 개선이 감지됨에 따라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로사토크이 엘콘 우라늄 광산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임

김지혜 전문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hkim85@kmi.re.kr/051-797-4767)

참고자료

- a) <https://thebarentsobserver.com/en/industry-and-energy/2021/06/russia-brings-back-largest-global-uranium-project>(2021.6.10. 검색)

러 플래티넘 사, 백금광산개발 실탄 확보

그림. 타이미르 반도 체르노고르스크예 백금 광산 위치



자료: Russian Platinum

■ VTB와 VEB와 MOU체결, 체르노고르스크예 백금 광산 개발 자금을 확보^{a)}

- 러시아 플래티넘(Russian Platinum)사에 따르면, 최근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포럼에서 타이미르 반도 체르노고르스크예(Chernogorskoye) 백금(팔라듐) 광산 개발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러시아 국영은행 VTB와 러시아 국가개발공사(VEB.RF)와 체결함
- 이 사업은 연간 700만 톤 규모의 광석 처리 시설 건설 등이 포함된 사업으로, 사업의 첫 번째 개발 트레인에 필요한 자금 규모는 약 1,900억 루블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러시아 플래티넘사는 비용의 20%를 충당할 것으로 알려짐
- 체르노고르스크예 백금광산은 타이미르 반도 노르니켈사의 니켈 광산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향후 55년간 생산 가능한 백금 약 7억 7,000만 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백금 이외에도 상당량의 니켈과 구리 광물도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 플래티넘사는 연간 순 매출액이 높게는 370억 달러에 이르고, 투자 회수 기간은 4년이면 충분할 것으로 추정했음
- 체르노고르스크예 광산에서 개발되는 광물은 북극항로를 통해 시장으로 운송될 전망이다

- 무사 바즈하예브(Musa Bazhaev) 러시아 플래티넘社 사장은 러시아가 세계 팔라듐과 백금 시장을 주도할 것이며, VEB.RF와 VTB 그룹은 이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혜 전문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hkim85@kmi.re.kr/051-797-4767)

참고자료

- a) <https://thebarentsobserver.com/en/arctic-mining/2021/06/arctic-miners-get-financing-one-worlds-biggest-palladium-projects>(2021.6.10. 검색)

러 극동북극개발부, 북극 해운기업 설립

■ 북극 입주기업 오베론과 극동북극개발부, 해운회사 설립 협정을 체결

- 러시아 북극지역 입주기업인 오베론(Oberon)사(社)는 북극항로 전용 해운기업 설립 건과 관련해 극동북극개발부와 협정을 체결함^{a)}
- 이 협정에 따르면, 북극항로 전용 해운기업 설립 사업의 투자 규모는 약 8억 루블임
- 새로 설립되는 해운기업은 북극지역의 석유 및 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자재를 북극항로를 통해 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북극 지역 개발에 필요한 파이프, 일반 화물 등 인프라 개발 물자 운송

- 오베론 사(社)의 아르세느 바지칸(Arsen Bazikyab) 사장은 파이프, 일반화물 등 석유 및 가스전 개발용 인프라 시설 건설을 위한 화물을 운송할 것이라고 발표함
- 아직까지는 4개 노선을 운항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지만, 2022년부터 10개 노선으로 확대할 계획임
- 오베론 사(社)는 북극 해운 기업 설립 사업 투자자에게 1만 400톤 규모의 선박(다목적 쇄빙건화물선 'Oberon')을 5년 동안 임대한다는 방침임
- 해당 쇄빙건화물선은 북극지역에서 항행할 수 있도록 선체 구조를 변경하기 위한 설계 및 최신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을 통해 현대화될 계획임
- 이 선박은 무르만스크 항만에 등록된 이후 올해 가을까지 무르만스크~아르한겔스크~사베타 노선을 연결하는 북극항로를 운항할 예정임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미, 노드 스트림2 관련 러시아 기업 제재

그림. 노드 스트림-2



자료: <https://www.sedaily.com/NewsView/1S3KOOPTI9>

■ 미국 재무부, 4개의 러시아 연방기관 및 기업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a)}

- 제재대상이 된 러시아 연방기관 및 기업은 해양구조 서비스(FSUE Marine Rescue Service), 모르트랜스서비스(LLC Mortransservice), 사마라 전력 재산 기금(JSC STIF), 콥소힘트랜스(LLC Koksokhimtrans) 등임
- 이 가운데, 해양구조 서비스는 연방기관, 모르트랜스서비스는 건설사, STIF는 해운수단 및 장비 대여 업체임
- 콥소힘트랜스는 운송회사이며, 우크라이나 사태(2014년)와 관련해 이미 미국 제재 대상 기업으로 포함되었으며, 노드 스트림2 송유관 건설 사업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었음

■ 미국은 러시아 선박 13척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올렸음^{a)}

- 미국은 러시아 기업뿐만 아니라 아카데미크 체르스키 호 등 선박 13척에 대해서도 제재 대상 선박 리스트에 올렸음

표. 미국의 대러 제재 리스트 대상 선박

	한글	영문명
1	아카데미크 체르스키	Akademik Cherskiy
2	아르테미스 오프쇼어	Artemis Offshore
3	바크테미르	Bakhtemir
4	발트 이슬레도바텔	Baltyskiy Issledovatel
5	카피탄 베클레미셰프	Kapitan Beklemishev
6	무르만	Murman
7	나르발	Narval
8	시부치	Sivuch
9	스바사텔 카레브	Spasatel Karev
10	핀발	Finval
11	우르카	Umka
12	블라디스라브 스트리조브	Vladislav strizhov
13	유리 토프체브	Yuri topchev

- 그러나 미국은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노드 스트림2 운영회사인 노드 스트림2 AG와 CEO^{b)}에 대한 제재대상에서 해제하였음^{a)}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 a) <http://www.morvesti.ru/news/1679/89692/>(2021.6.9. 검색)
b) 노드 스트림2 CEO: 매티아스 워니그(Matthias Warnig)

러, 수산물 수입 막고, 국내 수산업 활성화

■ 수산업 시장 확대를 러시아 정부의 수산업 보조금 지원 및 투자 프로젝트 시행 증가

- 러시아는 2014년의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로 EU 국가 및 노르웨이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러시아 국내 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법안을 이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이런 정부 지원에 힘입어 송어 양식은 러시아 국내 양식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러시아 국내 수산물 어가는 2020년 한 해 총 6만 5,000 톤의 송어를 생산했는데, 이는 1년 전보다 7,000톤이 증가한 양임
- 러시아의 현행 규정에 따라 바다송어를 판매하는데는 부가세 10%, 민물송어 판매에는 부가세를 20% 부과했으나 민물송어에 부과되는 세금을 대해서는 인하 방안이 제안됨
- 러시아 정부는 어획 쿼터량을 늘리고, 어획이 허용되는 수산물 목록을 확장함과 동시에 해양 연료 구매 보조금을 할당하는 등 여러 조치를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동시에 선박 건조 투자 프로젝트 시행에 있어 극동 조선소에 선박 가치의 최대 20%까지 보상하도록 하면서 향후 32척의 선박을 추가로 건조할 계획임

■ 러시아 국가두마, 수산업 지원 법안에 관해 논의

- 5월 26일 러시아 국가두마(우리나라의 국회)는 수산물 양식 과정을 단순화하고 중소기업의 수역 사용과 관련한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음
-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박 내 어획물의 일차적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된 현행법을 개정하여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
- 이와는 별도로 블라디미르 카신(Vladimir Kashin) 러시아 연방 공산당 농업문제위원회 위원장은 민물송어 감세 법안을 도입하기 위한 과제로 송어 가공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생산량을 늘려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설명함
- 블라디미르 카신 위원장은 러시아 송어 생산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 수입이 많다는 점을 강조함
- 이를 위해 물류 유통 체계를 단순화하고 소매업체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운송업체의 독점적인 운송 구조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송어·연어의 수입 관세 폐지 시한을 2024년 말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 러시아 연어 생산량은 2013년 이후 3배 가까이 늘어 2020년에는 11만 6,000톤을 기록했음
- 이날 회의에 참여한 블라디미르 일리체프(Vladimir Ilyichev) 경제개발부 차관은 송어 및 연어 튀김의 수입관세 폐지 시한을 2024년 말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함
- 이번 조치로 수산물 양식업의 발전이 촉진돼 기업의 세액공제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이 조치는 기업이 투자계획을 이행하고 국가 식량안보를 보장하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김현진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hyunjink24@gmail.com)

참고자료

- a) <https://www.pnp.ru/economics/kogda-v-rossii-podeshevet-ryba.html>(2021.6.8. 검색)
- b) <https://www.pnp.ru/economics/otmenu-vvoznym-poshlin-na-malkov-lososykh-predlozhi-prodlit-do-konca-2024-goda.html>(2021.6.8. 검색)



주요 통계



표. 2021년 4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화물 및 액체화물)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20/2021 증가율
극동지역	13.33(+11.5%)**	6.62(-6.7%)	19.95	+4.5%
북극해	2.49(-3.8%)	5.35(-8.0%)	7.94	-6.8%
발트해	9.9(+5.7%)	11.35(-18.1%)	21.25	-8.5%
아조프-흑해	8.75(+5.7%)	12.26(-12.5%)	21.01	-5.5%
카스피해	0.17(-33.6%)	0.39(-2.6%)	0.56	-16.4%
합계	34.84(+6.6%)	35.87(-12.6%)	70.1	-4.2%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울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비초카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안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김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a) <https://portnews.ru/news/311533/>(2021.5.26. 검색)

b) <https://portnews.ru/news/312779/>(2021.5.26. 검색)

표. 2021년 3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단위: 천 달러)

EAEU 코드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01-24	식료품 및 원자재	301,729.9	54,019.1	1,634.8	996.3	303,364.8	55,015.4
25-27	광물 제품	1,151,782.8	13,656.8	33,708.5	21,424.5	1,185,491.2	35,081.3
27	연료 및 에너지 제품	916,247.1	13,266.2	424.1	0	916,671.2	13,266.2
28-40	생고무 화학 제품	3,728.1	69,328.7	475.4	606.2	4,203.5	69,934.9
41-43	가죽원료모 피 제품	65.8	1,363.9	0.5	0.0	66.2	1,363.9
44-49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87,363.6	6,499.2	301.8	126.0	87,665.4	6,625.1
50-67	섬유, 섬유제 품 및 신발	205.2	26,757.2	223.3	244.0	428.4	27,001.1
72-83	금속 및 금속 제품	1,873.9	49,143.1	271.3	3,098.9	2,145.2	52,242.0
84-90	기계류	122,688.8	422,977.7	1,060.4	1,187.7	123,749.2	424,165.5
68-71, 91-97	기타	327,578.6	31,998.8	39,805.6	243.4	367,384.2	32,242.2
	합계	1,997,016.6	675,744.5	77,481.5	27,927.0	2,074,498.1	703,671.4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a) <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1.5.26. 검색)

표. 2021년 3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단위: 톤, 천 달러)

EAEU 코드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냉장수산물	0	2.5	-	-	-	-	-	-	0.1	2.5	-	-
0303	냉동수산물	99,417	127,616.3	511	953.0	3	3.1	-	-	99,419.8	127,619.4	511	953.0
03031	연어	1,070	3,805.6	-	-	0	0.0	-	-	1,069.9	3,805.6	-	-
030331	광어	68	378.2	-	-	-	-	-	-	68.4	378.2	-	-
030332	가자미	92	72.6	-	-	-	-	-	-	92.2	72.6	-	-
030339	기타 넙치류	1,577	1,206.1	-	-	-	-	-	-	1,577.3	1,206.1	-	-
030351	청어	7,707	4,536.3	-	-	0	0.0	-	-	7,707.4	4,536.3	-	-
030363	대구	5,407	15,560.7	-	-	-	-	-	-	5,406.7	15,560.7	-	-
0303670000	명태	73,255	73,523.5	-	-	3	3.1	-	-	73,258.2	73,526.6	-	-
0303893	농어	50	86.8	-	-	-	-	-	-	49.7	86.8	-	-
030391	알류	6,446	27,643.1	-	-	-	-	-	-	6,446.0	23,942.6	-	-
030399	지느러미, 머리, 꼬리 및 기타 식용 어패류	553	660.0	-	-	-	-	-	-	553.3	660.0	-	-
0304	생선 필레	11,708	34,851.5	42	132.2	0	0.0	-	-	11,708.1	34,851.5	42	132.2

0305	훈제 생선, 생선 가루	1	3.0	59	344.9	0	0.0	-	-	1.1	3.0	59	344.9
0306	갑각류	4,724	95,920.6	39	265.1	-	0.0	-	-	4,724.2	95,920.6	39	265.1
030614, 030633, 030693	게	3,693	88,119.3	-	-	-	0.0	-	-	3,692.7	88,119.3	-	-
0307	조개류	1,022	1,981.8	-	-	0	0.0	-	-	1,022.0	1,981.8	-	-
03072	가리비	121	321.0	-	-	-	-	-	-	121.1	321.0	-	-
03074, 03075	오징어 및 문어	837	1,414.4	69	234.8	0	0.0	-	-	837.3	1,414.4	69	234.8
0308	수생 무척추 동물*	1,030.6	3,276.1	-	-	0	0.0	-	-	1,030.6	3,276.1	-	-
03081	해삼	158.0	527.2	-	-	0	0.0	-	-	158.0	527.2	-	-
03082	성게	872.6	2,747.4	-	-	-	-	-	-	872.6	2,747.4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a) <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1.5.26. 검색)